



사랑과 사랑이 만나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끊어질 듯하다!’

저의 부모님이 가끔 사용하시던 이 표현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거나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급락할 때? 취업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멀리 떠나보내야 할 때나 자녀든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게 될 때입니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부인’ 역시 ‘애간장이 타고, 녹고, 끊어지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호되게 마귀 들린 딸을 품어 안고 돌보아야 할 엄마의 마음.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 않아 눈물만 흘렸을 지도 모를 그 마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성애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딸을 살려 달라 애타게 부르짖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으며, 앞드리거나 강아지 취급받기를 거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가나안 부인의 모습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며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필리 2,7-8)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그곳은 어떤 곳인가? 복음의 앞 대목을 살펴볼 때 그곳은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입술로만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하느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마태 15,8-9)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그곳’을 떠나 아예 믿음이 없는 지역인 이방인의 지역으로 물러가 셧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 대한 참 믿음이 없는 지역인 그곳에서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상숭배와 불경한 삶의 방식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여인은 찾았고, 그들이 율법 안에서 거부한 분을 여인은 믿음을 통해 고백했습니다(라틴인 에피파니우스 『복음서 주해』).

주님께 대한 믿음은 결국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이는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난(창세 1,3) 분의 목소리를 연상케 합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마태오 복음 강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사랑이 사랑을 만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믿음을 만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총도 받습니다. 우리도 큰 사랑을 체험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을 벗어나고 믿음이 없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을 만나야 하고 믿음에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사랑도 크고 믿음도 큰 오늘 복음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큰 사랑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물들게 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태준 필립보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56,1,6-7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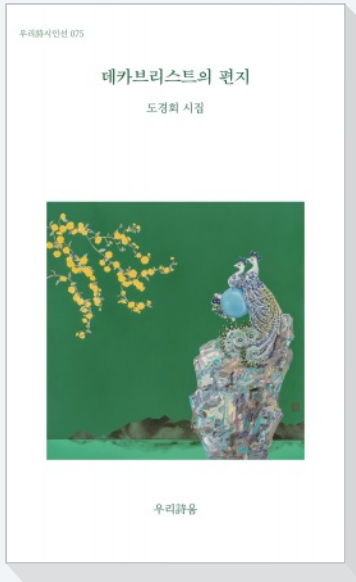
로마 11,13-15,29-32

복 음

마태 15,21-28

시심이 신심으로 승화하기까지

도경희 스텔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부엉이가 내 이름을 불렀네/ 말기 암을 진단받고/ 매운 콧잔등 흘쩍이며/ 날갯죽지 흠뻑 젖은 구름다리 건너 들어선 방/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삭지 못하는 지난날/ 일제히 울었고/ 무엇인가 옆놀리며 떠밀리며 살아온 내력들/ 저마다 따로 울었네/ 뼈를 녹이고 살을 에이듯/ 가을 겨울이 엮질러 놓은 울음 한 소쿠리/ 캄캄하게 수습하던 저 흰 너겅들/ 허리 긴 서름에 젖어 서서히 탈색되면서/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목련 꽃잎처럼/ 뒹굴고 있네”
-시 <우는 방>-

지난해 가을 발간한 나의 시집 『스테라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이 책의 해설을 쓴 허형만 시인은 “도경희 시인의 이번 시집의 시어 중에 ‘울음’이 많다. 간호사로서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 그리고 신앙심이 어우러진 점도 있겠지만 시인의 타고난 자비로운 심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 바탕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들리는 이야기들을 측은지심으로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연민스러울 때를 나는 좋아합니다. 어쩌면 시를 쓴다는 것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적는 것이며 그대에게 나를 바치는 기원일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쓸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쓸 때는 라파엘로가 그린 성화 ‘시스티나의 마돈나’ 아기 예수를 안고 구름 위에 서서 슬프고도 여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성모의 초상 앞에서, 기도가 하도 간절해 그가 기도할 때 아내는 그 방에서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그린 악마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작은 우물에 갇혀 고뇌와 갈등과 고통을 겪는 인간들에게 성모님의 은총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불현듯 내가 가톨릭문인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故 서인숙 마르파 시인께서 “나는 시를 쓰기 전에 항상 기도했다”고 하시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 수술 끝나면/ 월남전 파병용사인 나는/ 목소리를 잃는다// 수술실 앞에서/ 그늘을 한 자락 매달고 있는/ 안사람 손을 잡아본다/ 잎새들 다 떨어져 혈빈한/ 옹이 많은 나무// 자네를 만난 것이/ 내 생애 제일 큰 복이었네/ 온 정신을 모아/ 툼벙툼벙/ 마지막 말을 던진다// 소리가 와서 머무는/ 내 그리운 트랙에/ 휘파람새로 와서 울어/ 홀로 핀 소리 꽃 한 송이/ 막막하고 두려운 순례를 가고 있다”
-시 <휘파람새>-

소중한 삶의 노래며, 맑은 영혼의 집인 나의 시가 가톨릭시즘의 신심으로 승화하여 가야금 열두 줄에 소리 일 듯이 기도가 되고 고해가 되고 고해성사가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마태 24,50

‘함께’가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



성경 교육봉사자 종강미사

▼ 1학기 성경공부 종강(양덕동본당)



2023년 1학기 성경 공부반이 본당별로 종강을 하였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7월 1일(토) 교구청에 모인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1학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며 장성근 에단 신부(사목국 부국장)의 주례로 종강 미사를 봉헌하였다.

지난 1학기 교구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반은 어르신 반인 은빛과 지혜 여정 14개, 여정 첫걸음 4개, 일반 여정 36개로 총 54개 반이 열렸다. 총 수강 인원 768명에서 수료는 679명(88%)이 하게 되었다.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신자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2020년 전 세계가 겪었던 대유행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함께 모여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경사목부는 말씀의 끈을 놓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비대면 동영상 수업으로 공부반을 이어가고자 노력하였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공부반이 열리지 못한 본당들도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고 자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성경이 쓰인 배경과 당시 문화적 전통,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하게 다가오리라 여겨지기에 그렇다.

성경사목부는 교구민들을 위해 신자 개개인이 성경적인 삶, 즉, 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여정』이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성경 교육봉사자들은 방학은 하였으나, 교구청에 모여 집중교육을 통해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2학기 개강은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다. 교구보(7면 참조)를 통해 개강하는 반들이 소개된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코로나를 통해 깊이 깨달았다.

본당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며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함께’가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더 많은 신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아모 8,11)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1

진주지역 교우촌 (3)

병인박해는 1866년 2월 시작되었고 1873년 11월 대원군 실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박해의 여진은 남아 있었다. 특히 지방에선 정도가 심했다. 7년간의 박해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다. 1870년대 후반은 조선 교회의 또 다른 시련기였다.

당시 조선엔 세 명의 프랑스인 사제가 있었다. 블랑(Blanc 白圭三), 두세(Doucet 丁加彌),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그러다 1882년 프랑스와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사 입국은 조금씩 늘어났다. 1885년엔 10명의 사제가 있었다. 물론 조선인 신부는 없었다.

1873년 병인박해 종결 후 1882년 한불조약까지는 10년이다. 교우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녔다. 조선에 남았던 세분 사제도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교우들은 떠돌면서도 외인 전교와 냉담자 회두에 열정을 드러냈다. 박해를 견디어낸 저력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우들은 일정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 인근 교우촌과 연락망을 취할 조직도 갖춘다. 새로운 모습의 교우촌이 등장한 것이다. 생계수단은 막노동과 장사가 거의 전부였다. 장사도 웅기와 소금에 국한되어 있었다. 마산교구 지역엔 크게 일곱 군데 이런 교우촌이 있었다. 함양, 고성, 거제, 진영, 창녕, 함안 그리고 진주다.

다음은 진주와 인근 지역에 있었던 공소들이다. 이 기록은 훗날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성사를 집행했기에 확실한 공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부터 피난 교우들이 살고 있었기에 선교사 방문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공소가 있지만 대부분 다른 공소와 합쳐지거나 사라졌다.

소촌(召村/문산), 시정골(시장곡屍葬谷/문산), 남산(南山/문산), 원당(元堂/문산 삼곡), 양전(良田/반성), 대내(대천大川/이반성), 곰실(熊谷/대곡), 덕평(德坪/금산), 석계(石界/금곡), 굽실(운곡雲谷/사봉), 비라실(非羅室/장제), 읍내(邑內/진주), 배춘(培春/사천), 양개(양포良浦/사천), 대야내(대야천大也川/하동 북천), 양산(陽山/고성 영오)

당시 공소는 따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교사들은 대개 회장 댁이나 아니면 좀 넓은 집을 소유한 가정에서 미사 봉헌을 했고 판공성사도 주었다. 그리고 그곳을 공소 이름으로 사목 보고했다. 이때문에 한 지역에 여러 공소가 등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촌의 경우 소촌, 남산, 시정골로 공소가 나뉘는데 세 군데 공소가 독립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산南山은 문산을 남쪽에 있는 작은 산이다. 산 너머에 교우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시정골은 사람을 묻은 골짜기(시장곡屍葬谷)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피난 교우들이었기에 그런 곳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다 점점 소촌 중심으로 내려왔고 본당이 설 무렵 시정골엔 신자가 별반 없었기에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다.

문산본당 초대 주임 신부는 파리외방선교회 줄리앙(Julien 권유량) 신부다. 1882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1905년 4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6월 한국에 왔다. 24살 젊은이였다. 입국 후 그는 곧바로 마산포본당으로 배치되었다. 당시 본당 주임은 무세(Mousset 문제만) 신부였고, 줄리앙 신부는 이곳에서 조선말을 익혔다.

한편 무세 신부는 소촌召村본당 신설을 청원해 놓은 상태였다. 당시 교구장 뮈텔 주교가 젊은 새 신부를 그에게 보낸 것은 소촌본당 신설에 대한 허락이었다. 소촌공소는 1905년 9월 22일 자로 본당이 되고, 초대 주임은 줄리앙 신부였다. 발령이 났지만 줄리앙 신부의 부임은 해를 넘기고 1906년 1월에 있었다. 그는 삼곡리에 초가 세 채를 매입해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1907년 지금의 성당이 있는 소문리에 부지를 매입했고 1908년 성당을 신축했다.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산청 성심원에서 예비신학생 하계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라는 말씀을 주제로 교구 신학생들이 진행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예비신학생들은 자신의 성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QnA’ 프로그램은 예비신학생들이 신학생들에게 평소 궁금한 것을 묻고 이에 신학생들이 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최문성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자신의 성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님 부르심에 가까이 응답하는 예비신학생이 되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0

공소 순례 소감문

안양희 이사벨라(양덕동본당)

양덕동본당 천사들의 모후 Pr. 8명의 단원들은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즐거움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레스디움 내에 개인적으로 먼저 공소 순례를 다녀온 자매님의 일명 거꾸로 코스로 웅천-예구-학동-탐포-울포-가배-산달-두동공소의 일정이었습니다. 웅천에서 가면 거가대교를 지나 장목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매미성에 들어서 거제의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유배지였던 거제에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뿌리가 더 풍성하게 내렸던 흔적을 공소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소로 쓰임에 더없이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공소를 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나그네처럼 다녀가는 우리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모상의 훼손으로 문이 굳게 닫힌 가배공소와 그 옆에 허물어져 가는 집이 어찌면 삶에 쫓기듯 살아가면서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반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달공소 근처 ‘유섬이묘’도 방문하였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관비가 되어버린 유섬이와 6살, 3살의 어린 동생들이 유배를 가서 소식도 알 수 없이 살아야 했던 그 고단한 마음을 신앙 없이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선교의 거점이요, 신앙생활의 요람지였던 공소가 잃어버렸던 활기를 다시금 되찾기를 기원해 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창원성심원공소 방문은 중단합니다. 공소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외 공소의 순례는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건진성사

일시: 8월 27일(주일)
장소: 중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8월 22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입사

일시: 8월 23일(수)

장례지도사 7차 교육

일시: 8월 25일(금)~2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신앙강좌

일시: 8월 27일(주일)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8월 기도모임

일시: 8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2023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2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9월 4일~12월 18일, 15주간
개강일-9월 4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219차 ME주말 안내

일시: 9월 15일(금) 19:00~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
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
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
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9월애 동행>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8월 15일(화)~9월 24일(주일)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방법: '순례자 여권세트' 구입 →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 완성한 여
권을 '순교자성월'을 담은 미사에 제출하
고 축복장 받기
비고: '순례자 여권세트' 판매금 전액 기부
문의: 02-2269-0413(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9월 개강

내용: 서학과 박해-조진형 박사
· 성경대학: 공관복음1(7회 강의)-송봉모 신부
· 성인들의 꿈이 알려주는 10가지 비전-홍기령 교수
· 구약성경 아카데미: 지혜서-주원준 박사
· 기도란 무엇인가-이규성 신부
기간: 각 10~12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실시간 줌(ZOOM)강좌-매주 화 19:00~21:00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말씀과 치유 대피정

일시: 9월 2일(토) 13:00~17:3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신상현(야고보) 수사
내용: 내적 상처 치유
준비물: 미사준비
주관: 중앙동성당
문의: 010-9664-1813, 055-547-718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8월 21일(월) 19:00	중앙동성당	기도 공동체의 부활	이송자 그라시아 수녀(마티마 성경 담임)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자도) 성지순례 모집 매주 월요일·화요일 출발 34만원부터 ■해외 성지순례 모집 스페인·포르투갈 11월~2024년 1월 5일~1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9월 3일에 이전합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기서기 아귀타 3박 4일 115만원 미르코 투어 010-4239-1929
---	--	---	---

2023-2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톨릭 문화원	8월 29일(화) 10:0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구암동	8월 28일(월) 19:3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산호동	8월 31일(목) 20:15	일반	요한 복음서
상남동	8월 30일(수) 14:00	지혜	루카 복음서
양덕동	8월 28일(월) 10:00	은빛	요한서간과 요한묵시록
	8월 28일(월) 19:3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영 산	9월 1일(금) 10:40	은빛	요한 복음서
월 영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8월 30일(수) 20:10	일반	오경1(창세기)
월남동	8월 31일(목) 2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의 령	8월 30일(수) 10:30	지혜	역사서3(열왕기)
	9월 2일(토) 19:30	첫걸음	복음서와 사도행전
진 동	8월 28일(월) 19:30	첫걸음	구약1(오경과 역사서)
창 녕	8월 31일(목)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칠 원	9월 1일(금) 10:40	지혜	역사서1(여호수아)
함 안	9월 1일(금) 10:40	일반	오경1(창세기)
호 계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창원지구			
가음동	8월 31일(목)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대방동	8월 29일(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덕산동	8월 28일(월) 19:30	일반	역사서1
	8월 29일(화) 10:0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8월 31일(목) 10:50	지혜	역사서4(역대가~)
반 송	8월 30일(수) 10:30	일반	오경1(창세기)
	8월 31일(목) 10:40	은빛	마태오 복음서
사파동	8월 28일(월) 20:00	일반	역사서2
	9월 1일(금) 10:4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수 산	9월 1일(금) 10:4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용 잠	8월 30일(수) 19:00	일반	역사서2
중앙동	9월 1일(금) 10:4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좌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거 창	8월 30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금 산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남 해	8월 30일(수) 10:30	일반	오경2(탈출기)
사 천	9월 1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9월 1일(금) 19:30	일반	역사서1
산 청	8월 30일(수) 10:40	지혜	예언서2
	9월 1일(금) 19:30	일반	역사서2
삼천포	9월 1일(금) 10:30	첫걸음	시서·지혜서와 예언서
	9월 1일(금) 19:30	첫걸음	시서·지혜서와 예언서
상평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신안동	8월 29일(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옥봉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오경1(창세기)
평거동	8월 30일(수) 10:40	은빛	복음서
	8월 31일(목) 20:10	일반	시서와 지혜서
함 양	8월 28일(월)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거제지구·북지시설			
거 제	9월 1일(금) 10:30	은빛	마태오 복음서
고 현	9월 1일(금) 10:40	일반	오경2(탈출기)
대 건	8월 31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북산동	8월 31일(목)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작은예수회	8월 31일(목) 10:0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장 평	8월 31일(목) 10:30	일반	마르코
지세포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태평동	8월 31일(목) 10:3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하 청	9월 1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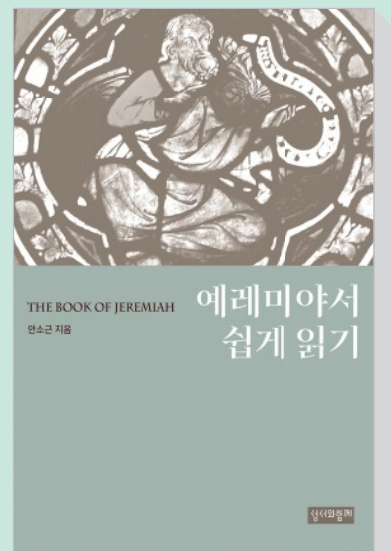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예레미야서에 쉽게 다가가게 해 주는 길잡이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다른 예언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예레미야의 경우 예언자의 삶과 그의 예언은 떼어 놓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로 요시아, 여호야김, 치드키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예언자의 운명은 그가 전한 말씀과 같은 운명을 겪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삶을 평탄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총 52장의 예레미야서는 그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야서 쉽게 읽기』와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로 독자들을 만난 안소근 수녀는, 이번에도 예레미야서를 잘 아는 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듯이 독자들의 예레미야서 읽기를 도와줍니다.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는 예레미야서의 핵심 본문을 충실히 해설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예레미야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를 짚어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하나하나 알려주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예레미야서에 다가갈려는 많은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지은이: 안소근 수녀
- 출판: 성서와함께

청년 500명이 미사에 참석하는 본당이 있다면... 청년회 캠프에 200명이 참석하는 본당이 있다면...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 명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매년 인구감소율이 두 배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천만 명 수준의 현재 인구가 25년 뒤면 4천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미 성당은 저출산 시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전히 한국 내 본당에서는 학생미사나 청년미사라는 이름으로 미사전례를 거행하나 학생이나 청년들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선 본당 사목자들은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교구 내에 주일미사 참석인원이 500명을 넘기는 본당은 얼마나 있을까? 청년미사에 500명의 청년들이 참석하는 미사가 있다면...현실 가능한 이야기일까?

명서동성당의 지하 강당에서는 이것이 현실이다. 매 주일 오후 5시 30분, 명서동성당 지하 강당은 베트남 청년들 500여 명으로 채워지고 베트남어로 미사가 거행된다. 강당 내 공간이 부족해서 복도까지 꽉 찬다. 강당 내 교리실 하나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공간을 가득 메운다. 청년미사라고 이름 지어 부르지는 않는데, 청년들이 그 만큼 모인다.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25퍼센트가 베트남 출신들이다. 이들 대부분이 청년들이다. 일선 본당에서는 젊은이들이 성당에 모이지 않아 걱정이겠지만, 이주민센터는 베트남 출신의 젊은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배부른 고민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고심이 가득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달리 본인들만의 성전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본당의 한 공간을 빌려 사용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혹여나 외국인이 몰려다닌다고 동네 주민들의 민원 신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아직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맞아, 7월 마지막 주말에 창원, 진주, 거제에서 170여 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거제도로 여름캠프를 떠났다. 여전히 행사에 앞서 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단순히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아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숙소도 외부인들과 접촉이 없도록 전체를 대관하여 베트남 형제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국인들과 충돌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서도. 내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걱정했던 것이다. 관할서인 서부경찰서 외사과에 협조를 요청해 캠프를 떠나기 전 발대식에서 범죄 및 사고 예방교육도 가졌다. 여행 기간 동안 대절한 버스기사님들과 베트남 청년들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기사님들도 모시고 캠프의 성격도 설명하고, 버스 내에서 소음 등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는 청탁(?) 같은 부탁도 드렸다. 사실, 여름캠프를 떠나면서 경찰에 요청해 범죄 예방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절한 버스기사님께 출발하면서 목례 정도를 하며 '잘 부탁드립니다'고는 인사는 해봤으나, 공식 일정에 기사님들과의 대화를 삽입해 본 것도 처음이다. '내가 준비를 잘 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과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베트남 청년들을 보호해 주고 싶은 지도 사제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는 달리 베트남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문제아로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기분이 상했다면 형제들이 부디 나를 용서를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과한 걱정은 걱정으로만 남았고, 여름의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저녁 캠프장에서, 성대한 바베큐파티와 캠프파이어를 통해, 베트남 청년들의 화려했고 열정 넘치는 밤은 또 다른 숙제를 내게 안겨주었다. 얼마나 젊음을 발산하고 싶었을까? 공장의 기계 소리에 묻혀있던 그들의 소리는 캠프장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하늘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젊음의 강렬한 에너지를 좀 더 건강하고 복음적으로 품어 낼 수 있는 공간과 사목적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인 듯하다. 500여 명의 젊은 청년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과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다.

이 지면을 빌려, 숫자가 많아서 고민인 우리 베트남 가톨릭 공동체에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명서동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베트남 공동체를 언제나 환대하는 통영 태평동성당, 거제 국산공소, 진주 칠암동성당, 함안 칠원성당 공동체에도 함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 사목하러 오신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의 토마스 신부님과 살레시오회의 마리아 수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응원을 보낸다. 한국 성당도 청년들이 많아서 고민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도해 본다.